지역 소식통

정읍시, 달팽이한걸음 행사 '성료'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37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지난 15일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제9회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달팽이한걸음'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

1500여명의 정읍시민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무궁화 복지월드 정읍시지회를 비롯해 (사)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정읍여고, 전북과학대 사랑초 및 나눔의 소리, 여성자원봉사회, 정읍자율 방범 연합회 등 약 2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추첨이 진행돼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장애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장애체험부스'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부스'도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관내 고창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농협 내 부육성조직 회원들과 함께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군지부와 관내 농·축협 임직원, 농협 내부 육성단체인 고창군 새농민회, 농가주부모임 고창군연합회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선운산농협 무장면 4개 농가를 찾아 비닐멀칭작업 및 땅콩, 고구마, 옥수수 등 파종을 지원했다.

윤종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다짐하고, "다양한 농가 소득증대 활동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신자동차전문정비조합 정읍지회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호응'

(사)전북 신자동차전문정비조합 정읍지회에서 주관하고 정읍시 후원으로 지난 16일 운영된 차량 무료 점검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는 모두 25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차량 점검을 받았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진 회장은 "올해로 14년 째 회원들의 회비와 협찬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흐뭇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 역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서울 교류협력 추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계획 논의

정읍시와 서울시가 올해도 상호 우호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양 시간 교류협력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자치단체장은 '서울시&정읍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 자연체험 시설 조성과 편의 제공', '서울시 연수원 유치'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또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풍부한 농특산물과 청정 자연, 수준 높은 문화관광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모범적인 국내 도농 교류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양 시간 상생 발전과 두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이후에도 상호 우호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양 시는 지난 2014년 '서울시-정읍시 상생 발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관련,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관계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 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 정읍 관련 6개 주요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안길만 의원, 5분 발언서 교육예산 증액 편성 요구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에 대하여 처리하고 산회했다.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안길만의원은 정읍시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이 겨우 0.75%를 차지하는 58억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급식비 38억원과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등을 제하고 나면, 순수 교육예산은 고작 7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역 사회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복형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변 곳곳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지난 5년간 20억원의 사업비로 88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지만 현재도 6,2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어 적극적인 석면처리 예산확보와 함께 석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낙삼 의원은 해마다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해줄 것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8일과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하고,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이 있은 후에 상정된 안건 및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2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부안 하서면민 화합한마당 잔치 성황리 열려

부안군 하서면민 한마당 잔치가 1500여 면민들의 화합과 단합 속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제14회 부안 하서면 화합한 마당 축제가 지난 15일 하서 고인돌 체련공원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향우회 등 1500여명이 함께해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하서의 특산품인 오디를 활용한 오디빙수 만들기 체험과 친 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이용한 떡매치기 행사를 통해 하서가 친 환경 농업의 메카이자 새만금 시대의 희망고을임을 알렸다.

식전행사로 하서면 농악단의 흥겨운 풍물놀이와 면민축제를 축하하려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공연, 하서중학교 학생들의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문숙자 하서면장은 "하서면민을 모시고 제14회 면민 화합한 마당 축제를 개최하게 돼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며"이 열기를 바탕으로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 많은 주민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청자박물관

도자기 체험 수학여행 코스 각광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천년 역사의 부안 청자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부안 청자박물관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부안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올들어 지난 3개월 동안 부안 청자박물관을 찾은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은 총 2만여 명으로 이는 월평균 6000여 명, 하루평균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국내 유일 청자전문박물관으로 청자역 사실, 청자명품실, 수장고, 청자제작실 및 체험 실, 특수영상실, 기획전시실 등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 도자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살피고 복합적인 도자문화체험이 가능하다.

문화유산 중 하나인 도자기에 담겨 있는 도공들의 땀과 장인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문양을 그려보며 만든 작품을 건조 후 초벌과 재벌을 거쳐 직접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도예강사를 통해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이론 강의에 이어 흙반죽부터 성형까지 전 과정을 보여줘 체험 전에 동기유발 및 학습효과가 뛰어나다.

이달 들어서도 광주 수완하나중학교, 전남중학교, 경기 수주고등학교, 익산 가운초등학교 등 1261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도자기 체험을 예약했으며 이후 체험예약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도자기 체험에 참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나춘균(60) 회장은 "부안이 자연경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이렇게 역사가 깊은 세계 최고의 도자문화가 있는지 몰랐다"며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년도자문화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갈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청자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함으로써 '흙으로 빚은 보물' 부안 청자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며 "고려시대 부안 청자가 세계로 뻗어 나갔듯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안 청자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고창모양성제' 서울지역 사전 홍보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가 최근 서울 지역에서 '제44회 고창모양성제'를 알리는 사전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전 홍보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에서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고창 모양성제'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모양성보존회, 고창 경제살리기, 고창군 애향청년회,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과 용산역 대합실 등에서 모양성제 안내 리플릿과 고창군 특산물을 함께 나눠주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홍보단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사)고창모양성보존회 관계자는 "고창 모양성제의 전통과 역사, 현대의 조화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세종시 등 주요도시와 지역축제장을 찾아 홍보활동을 펼쳐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